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오셔서 따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세 번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셨기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통해 베드로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며,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 주시기 원하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언제나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죄와 실수로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의 고백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불 앞에서 세 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며칠 전 불 앞에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 과거의 상처와 죄악을 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셋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우리를 다시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의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비록 베드로는 실패자였지만, 주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은 진정한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용기를 내어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다시 확인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다시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

목장 모임 순서 가이드

1. 찬 양 : 오늘의 결단 찬양을 다시 한 번 불러 봅시다.

오늘의 결단 찬양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찬양 QR Code



2. 대표기도 : 순번을 정해서 한 분씩 기도해 주세요.

3. 나 눔

질문 1) 지난 주 말씀 혹은 한주간의 큐티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질문 2)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질문 3)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충성,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더 큰 사명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 주세요.

4. 기도 제목 나눔 및 합심기도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7/21(월)	7/22(화)	7/23(수)	7/24(목)	7/25(금)	7/26(토)	7/27(주일)
잠 10-13	잠 14-16	잠 17-20	잠 21-23	잠 24-27	잠 28-31	전 1-3

Q T

이번 주 QT 말씀

7/21(월)	7/22(화)	7/23(수)	7/24(목)	7/25(금)	7/26(토)	7/27(주일)
겔 3:1-15	겔 3:16-27	겔 4:1-17	겔 5:1-17	겔 6:1-14	겔 7:1-13	겔 7:14-27